“국민 모두 행복하면 그것이 불국토”



2017년 11월 23일 국민행복실천운동본부 창립대회에 참석한 정각 스님(앞줄 다섯번째).



정각 스님은 열린 종교 화합하는 종교를 위해 노력했다. 2003년 부산종교인의 밤에 참석한 정각 스님(앞줄 세번째).

정각 스님은?

1934년 경북 고령에서 태어났다. 망월사 춘성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강원도 춘성 수양사 주지, 법무부 춘천 교도소에서 지도법사로 활동했다. 이후 부산 미륭사를 불사하고 부산구치소 및 교도소에서 교화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일붕 서경보 스님의 수법 제자로 일붕 서경보 스님 전국 문도회 수석부회장, 재단법인 일붕선교종 창종 초대 총무원장을 역임했다. 부산인권센터 공동대표, 정의사회구현 부산시민협의회 상임공동대표, 부산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대표, 한국불교장례문화연구원 원장, 불교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 부산종교인평화회의 공동 대표 등을 맡아 시민운동을 이어갔다.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받아 조계종 총무원장 표창, 법화종 종정 표창, 법무부 장관 표창, 농수산부 장관 표창, 내무부장관 표창, 경찰청장 표창, 국민훈장 석류장 수상 등 100여 회 수상했다.



‘정각 스님’ B1면에서 계속

세상 편견 극복한 선구자의 삶

지역의 대중은 스님을 ‘선구자’라고 이야기한다. 선구자는 앞서가는 만큼 온 몸으로 편견과 부딪혀야 하고 많은 아픔을 감수해야 한다. 스님은 부산인권센터 활동을 이어가며 정의사회구현 부산시민협의회 상임공동대표, 부산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대표, 한국불교장례문화연구원 원장, 불교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 부산종교인평화회의 공동 대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앞서간다는 일은 힘든 일이었다. 거센 항의와 반발이 스님을 괴롭혔다. 당시 환경 문제와 인권 문제는 경제 이념 속에서 무시되었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들을 겪어야 했다.

“지금은 환경 문제가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이지만 제가 활동하던 당시는 오직 경제 발전만이 최고 가치였습니다. 낙동강을 살리기 위해 사람들을 모아 대구에 있는 염색공장을 방문했어요. 염색공장 사장이 제 지인이기도 했지만 넘어 갈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오염폐수를 몰래 강으로 버리는 것을 적발하고 강하게 반발했지요. 또 새롭게 대구에서 추진했던 위천공단 설립을 최선을 다해 막아내고 환경을 위한 여론을 형성해 나갔습니다”

스님은 오랜 관습과 이념과 싸워야 할 때는 협박도 받았다. 스님은 ‘장례문화’를 바꾸기 위해 화장(火葬)을 널리 알리려했다. 이유는 환경 때문이었다. 스님은 오래 전부터 환경문제를 생각했고 장례문화도 환경을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화장이 적절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반발이 생각보다 심했다. 오랜 동안 유지해온 유교문화에서 화장은 ‘불효’였다. 스님에게 매일 협박전화가 걸려왔다.

미래세대를 걱정하며

일찍이 환경문제도 심각성 인식

‘화장’ 알려 장례문화 변화운동

27일 국민행복실천운동본부 발족

영 · 유아 생명 살리기운동 시작

산모 · 영유아 위한 ‘라이프가든’

“전화번호를 바꿔야 할 정도로 협박 전화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보세요. 화장을 누가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부산 최대 공원묘지인 영락공원에 최신식 화장 기구를 들이는 과정에서도 시민들의 반발이 심했지만 지금은 모두가 인정합니다.”

스님의 많은 활동에는 대부분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교도소 교정 교화활동, 종교인 화합을 위한 열린 모임, 김해 노동선방, 군포교를 위한 찾아가는 법당 등 당시에는 모두가 혁신적인 행보였다.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교정 교화 활동을 한지도 52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독지가로 불렸지요. 지금은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체계화해서 노력하는 것을 보면 흐뭇합니다.”

선구자로서 가장 보람 된 순간일 것이다. 자신이 닦은 길이 여러 사람들의 이정표가 되고 시대의 흐름을 옳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은 무엇보다 값진 일이기 때문이다.

출가 인연…“사람이 좋아서”

스님의 출가 동기는 ‘사람이 좋아서’다. ‘부처님이 좋아서’가 아니다. 스님은 남부러울 것 없는 집안에서 자랐다. 크고 작은 일을 겪기는 했지만 스님은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로 나올 준비를 했다. 스님의 인생이 출세간으로 향하게 된 것은 ‘사람’을 만나면서부터다. 그 ‘사람이 좋아서’가 스님을 출세간으로 이끌었다. 그 사람은 바로 망월사 춘성 스님(春成 · 1891~1977)이다. 정각 스님은 망월사에서 고시 공부를 하던 친구의 소개로 춘성 스님을 뵈었다. 만해 한용운 스님의 유일한 제자인 춘성 스님은 욕쟁이 스님으로 불릴 정도로 파격적인 언행으로 유명했지만 정각 스님의 기억은 달랐다.

“추운 겨울 길을 가다 맨발인 사람을 보면 그 자리에서 신발을 벗어 주던 분이셨습니다. 선사의 기품과 자유로움에 저는 매료됐고 출가를 결심하게 됐어요.”

‘춘성’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만난 청춘에게 지금까지의 삶은 모두 의미가 없었다. 돈, 명예, 권력, 모두 앞으로의 삶에 필요치 않은 것들이었다. 1960년, 26살에 정각 스님은 닮고 싶은 스승을 따라 출가했다. 자유인의 삶을 보여준 춘성 스님의 삶에서 자신이 그동안 지켜온 부유함과 안정이 거짓말처럼 가치 없게 느껴진 것이다. ‘사람을 사람답게’를 외치고 인권을 위해 함께 목소리를 높이게 된 건 당연한 인과일지도 모른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에겐 한없이 자비롭고 강한 권력자들에겐 사자처럼 엄정한 춘성 스님의 행보를 닮고 싶었기 때문이다.

‘행복 드림 사업’ 전개

정각 스님은 또 다시 행복한 나라를 꿈꾼다. 인권의 또 다른 말 ‘국민행복’을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스님은 2017년 11월 23일 부산 영도에 있는 한 식당에서 (사)국민행복실천운동본부 창립 발기인대회를 개최했다.

스님은 “국민 소득 3000달러가 되지 않는 극빈국인 부탄은 행복도와 만족도가 97%로 세계 최고 행복한 나라고 꼽힌다”며 “행복을 위한 참된 조건을 다시 한 번 새롭게 생각해 봐야 할 시기다”라고 강조했다. 성과와 경제개발 위주로 숨가쁘게 달려온 발걸음을 잠시 고르고 미래세대에게 참된 행복의 조건을 제시할 때라고 말한다. 스님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으로 힘겨운 과제에 도전한다. 버려지는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는 행복 드림 사업이다. ‘베이비 박스’라고도 불리는데, 아기를 유기하는 ‘장소’로 잘못 인식 돼 논란을 안고 있기도 하다. 그래서 스님은 명칭을 ‘라이프 가든’으로 바꿨다. 전반적인 사회문제를 먼저 고찰하고 예방하며 현실적인 대안을 수립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생각했다. ‘베이비 박스’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정원(라이프 가든)이다. 이 정원은 아기만 보호 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로부터 소외당한 임산부의 인권과 행복권을 보살피는 운동이다. 임산부인 엄마를 먼저 보호하고 아기의 생명을 구하며 그들의 삶이 깨지지 않도록 돕는 것이 주목적이다. ‘라이프 가든’은 부산 홍법사에서 시설을 운영한다.

(사)국민행복실천운동본부는 지난 2월 17일 홍법사에서 공식적인 영유아 행복 드림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발대식을 개최했으며 2월 20일에는 대학생들이 참여해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행복드림센터(라이프 가든)는 3월 중으로 정식 개소할 예정이다.

정각 스님은 “부처님은 행복을 깨달았다”고 정의했다. 행복이 부처님이 남겨 주신 지상과제란 의미이다. 불교를 전한다는 건 바로 참된 행복을 전하는 일이란 뜻이며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곧 부처님의 가르침인 자비를 실천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웃는 나라, 그것이 바로 스님이 생각하고 발원하는 ‘불국토’이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www.btn.co.kr
BTN 홈페이지· 모바일APP이
더욱 새로워졌습니다!
TV OnAir
라디오 OnAir
최신업로드
스님별방송
퀵 메뉴로 주요기능을 쉽게!
인기 검색어를 한눈에!
한눈에 보이는 콘텐츠!
신행생활도 스마트하게!
스마트폰(구글플레이/앱스토어) 에서 BTN이나 불교TV를 검색 후 BTN 앱을 다운받으세요!
olleh 233번 tv 305번 TV 275번 skylife 181번 케이블TV 채널문의 02.3270.3300 | BTN 붓다회 동참문의 1855-0108 | ARS방송포교 후원전화 060-800-7000